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1. 1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튀르키예, 이라크 북부서 PKK 근거지 공습

- 11.4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 하쿠르크지역 쿠르드노동자당 (PKK) 등을 대상으로 동굴·벙커·대피소 등 15개 표적을 파괴했으며, 탄약을 최대한 활용해 많은 테러리스트를 무력화했다고 강조

※ 튀르키예는 10.1 앙카라에서 차량 폭탄 테러 시도가 발생한 후 무장세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

○ 佛, 유대인 겨냥 피습에 이어 폭발물 신고 등 테러 공포 확산

- 11.7 언론은 하마스-이스라엘 분쟁 여파가 유럽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프랑스 파리 쇼핑몰에서 폭발물 의심 소포가 발견되어 한때 출입문이 폐쇄되고 인근 기차 운행도 중단되었다고 보도

※ 지난주 리옹에서 유대인 여성이 괴한에게 흉기로 피습되는 등 하마스-이스라엘 분쟁 이후 反유대주의 사건이 1천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부언

미주

○ 美, 유대인 협박글 게시 명문대학생 구금

- 11.1 법원은 인터넷에 '유대인 남성의 목을 찌르고 캠퍼스에 소총을 가져와 유대인을 쏴겠다'라는 협박글을 게시한 코넬大 재학생 「패트릭 다이」를 보석 없이 구금

※ 「갈랜드」 법무부 장관은 증오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부언

○ 캐나다, 反유대주의·이슬람 혐오 등 증오범죄 급증

- 11.4 캐나다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자국 내 주요 도시에서 反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에 관련된 폭력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

※ 캐나다 경찰은 10월 증오범죄 건수가 前年 同月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질병관리청, 세계 첫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개발

- 11.1 언론은 질병관리청이 기존 세균 배양이 아닌 단백질 항원 기반의 부작용이 없는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軍 예방접종 등으로 생화학테러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

※ 탄저균은 미사일 등에 탑재해 공기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무기화할 수 있으며 감염 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97%까지 상승

○ 인니, 알카에다 · ISIS 연계 무장 테러단체원 59명 체포

- 11.1 언론은 인니 경찰이 '24.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테러단체를 집중 단속하여, 알카에다 연계 '제마 이슬라마야(JI)'와 ISIS 연계 '자마 안샤룻 다올라(JAD)' 소속원 5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
※ 인니 정부는 同 조직원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창설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테러 및 급진적인 내용과 관련된 선전물을 퍼뜨리는 등 선거 방해 음모를 꾸몄다고 발표

○ 파키스탄, 軍기지 공격 무장 세력 전원 사살

- 11.4 파키스탄 軍은 편자브州 동부에 소재한 훈련용 공군기지를 공격한 무장세력 9명 전원을 사살했으며, 이 과정에서 지상에 있던 항공기 3대와 연료 탱크 1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

※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이 同공격의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 제기

중 동

○ 이스라엘, 反유대주의 사건·폭력 증가에 따라 해외여행 자제 촉구

- 11.4 언론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와의 전쟁 이후 세계 곳곳에서 反유대주의 사건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했다고 보도

※ 美 유대인 단체 '反명예훼손연맹(ADL)'은 10.7~23까지 312건의 反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했으며, 이중 190건은 이·팔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부연

北아일랜드 현충일 폭탄 테러

- '87.11.8 北아일랜드 페르마나郡 전쟁추모관에서 IRA(아일랜드 무장세력)가 설치한 시한폭탄이 폭발, 경찰관 포함 11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



<사건 현장>

- IRA는 “실제 목표는 영국군이었으나 행렬 도착 前 실수로 폭탄이 폭발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”라며 유감 표명
- 이로 인해, IRA는 국내외적인 비난을 받았으며, IRA의 ‘아일랜드 통일정부 건설’에 대한 지지기반이 약해지는 사건으로 평가
 - * 아일랜드 밴드 ‘U2’도 공연중에 “北아일랜드 사람들은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”라며 同 테러를 맹비난
- 한편,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는 ‘범죄인 인도法’ 협의중이었는데, 同 사건으로 ‘범죄인 인도法’에 대한 반대가 감소, 신속한 통과 촉진
- 현재는 폭발이 있던 장소에 美 대통령 ‘빌 클린턴’의 이름을 딴 유스호스텔 ‘클린턴 센터’가 재건되어 운영 중

테러 단체

< 아일랜드 공화군 진정파 >

Real Irish Republican Army(RIRA)

- (결성) '97.11 北아일랜드에서 영국군 완전 철수, 아일랜드 통일정부 건설을 목표로 결성

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1.5), 영국('98)

- (연계세력) 아일랜드 공화군 연속파(CIRA)

- (핵심인물) 마이클 맥케빗(창설자)

- (활동지역) 北아일랜드, 아일랜드, 영국

- (활동수법) 北아일랜드 주둔 영국군 및 경찰 총격 · 폭탄테러

- (주요테러) ① '98.8 北아일랜드 오모에서 차량폭탄테러

② '14.2 영국 남동부지역 영국군 모병 사무소에 편지 폭탄 발송

③ '16.3 북아일랜드에서 교도관 차량 폭탄테러

